〈김주호 7단〉 〈홍민표 6단〉 〈백홍석 6단〉 〈김지석 4단〉 〈김형환 4단〉 〈김형우 2단〉 〈류동완 초단〉 〈이원도 초단〉

신예들 '반상위의 반란'

한국바둑리그·LG배 세계기왕전
류동완·이원도 초단 등 돌풍 주도
김형우 2단, LG배 8강 이변 연출

'신예'는 결코 풋내기가 아니다. 최근 바둑계에서 신예라는 단어는 곧 '무서운 실력파'로 통한다.

2008 한국바둑리그(이하 바둑리그)와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이하 LG배)에서 신예 기사들이 쟁쟁한 선배들을 잇따라 격파하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바둑리그는 초단 6명의 활약이 눈부시다. 가장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신예는 류동완, 이원도 초단. 1989년생들인 이들은 현재 3전3승을 달리며 보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랭킹 20~30위 권에서 장기간 머물러 온 홍민표 6단과 김주호 7단도 상대 팀 에이스들을 연속 제압하며 서열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제일화재의 류동완은 지난해 12월 입단해 한국리그가 거의 첫 데뷔 무대이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 LG배 준우승자 한상훈 3단을 꺾었고 2, 3라운드에서도 최원용 5단과 송태곤 8단을 연파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티브로드의 이원도 역시 류동완에 못지 않다. 김형우 2단, 박정근 3단에 이어 유창혁 9단마저 연파하고 3연승을 거둔 이원도는 프로에 들어온 지 꼭 1년 된 신예이다.

제일화재 홍민표도 유창혁, 백홍석, 박정상 등 상대 팀 에이스들을 연파하며 팀의 상위권 진출을 도왔다.

이밖에 한게임 김주호도 초반 3연승을 기록했고, 월드메르디앙의 배준희 2단은 2전2승으로 비상하고 있다.

LG배에서도 신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한국기원은 30일 "LG배 8강에 4명의 한국기사가 올랐으며, 32강전에서 한국 신예들의 활약이 컸다"고 밝혔다.

김형우 2단이 쟁쟁한 선배들을 누르고 8강에 진출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11명의 기사가 32강에 올랐지만 구리, 창하오 9단만이 8강에 진출했다. 일본은 야마시타 게이고, 고노 린 9단이 8강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의 부진은 32강에서 맞붙은 한국 신예들에게 잇따라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32강전에서 김형환 4단은 중국 랭킹 3위 쿵제를 215수 만에 불계로 눌러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또 김형우 2단도 중국 10위 추쥔을 따돌려 '신예반란' 대열에 합류했다. 김형우는 16강에서 스위에 4단의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백홍석 6단과 김지석 4단 등도 이 대회에서 중국의 강호들을 잇따라 격파했다.

한편 LG배 우승 1순위인 이세돌 9단은 김지석 4단을 꺾고, 박영훈 9단은 중국 신예 왕야오 6단을 누르고 8강행을 결정지었다. 이창호 9단도 조치훈 9단을 무너뜨리고 8강에 올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라이브 강좌로 바둑 즐겨라"

엠게임 바둑, 26일 오픈

"인터넷으로 바둑 배우세요"

엠게임 바둑(www.mgame.com)은 30일 "요일별 다양한 바둑 강좌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라이브강좌'를 지난 26일부터 생방송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브강좌에는 박지은 9단과 바둑TV 해설자인 윤성현 9단, 백대현 6단, 김효정 2단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월요일은 박지은이 초급자를 대상으로 포석·정석의 기초를 강의하며, 수요일에는 미녀기사 김효정 2단이 '김효정의 기립비기'라는 타이틀로 중·고급자에게 바둑실력 향상 비법을 전수한다.

또 화요일과 목요일은 윤성현 9단과 백대현 6단이 각각 '빅(Big) 대국 따라잡기' '베팅의 재구성' 강좌를 진행한다. 한 주간의 주요 프로대국을 완벽 해부하고, 이창호와 이세돌 등 유명 기사들의 대국을 분석해 바둑의 고수가 되는 노하우를 일러주는 강좌다.

이밖에 금요일에는 바둑계의 주요 뉴스를 소개하고, 프로기사를 초청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무한바둑도전기'가 마련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LG배 기왕전, 한국팀 4명 8강 진출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8강전에 이창호, 이세돌, 박영훈 9단과 김형우 2단 등 한국 프로기사 4명이 진출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열린 이 대회 16강전에서 맞붙은 이창호(왼쪽)와 일본의 조치훈 9단의 경기 모습. 〈사이버 오로 제공〉

한·중·일 '빠른손' 가린다

6.1일부터 TV바둑아선수권대회…이세돌·이창호·장쉬 등 출사표

한·중·일 3국의 바둑 스타들이 속기전 대결을 벌인다. 제21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가 오는 6월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 대회가 시작된 지난 1989년 이후 일본 9회, 한국 6회, 중국 4회씩 우승을 나눠가졌다. 일본은 초창기 6연패를 하는 등 대회 초반에 주도권을 잡았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에 밀리는 형국이다.

현역 챔피언은 한국의 이세돌 9단이다. 지난해 중국 천야오예를 결승에서 꺾고 처음 우승해 올해 2연패에 도전한다.

또 이 대회 3차례 우승한 이창호 9단, 조한승 등 KBS바둑왕전 1, 2위를 차지한 기사들이 출전한다.

중국은 CCTV배 우승과 준우승자인 셰허와 리저 등이 나선다. 일본은 NHK배서 결승을 펼쳤던 장쉬와 조치훈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1분 초읽기 10회만 주어지는 속기 방식이다. 7인 토너먼트로 결승도 단판이다. 우승 상금은 2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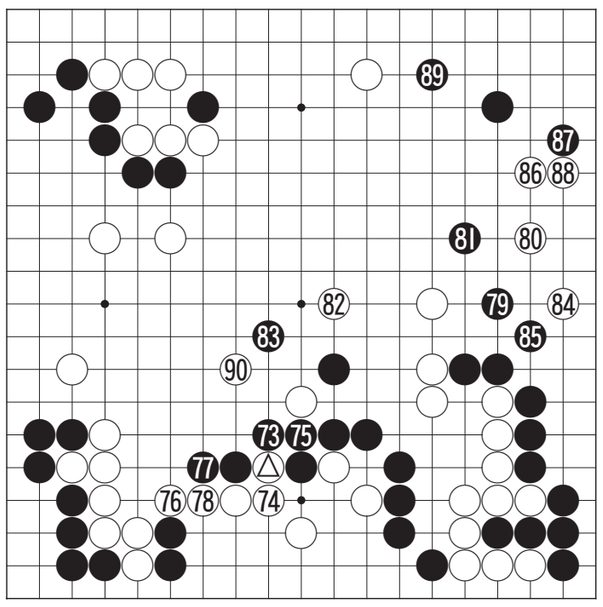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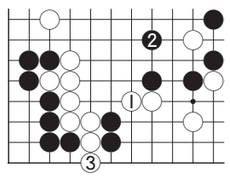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5보 (73~90)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허우석 5단은 17회 동안의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입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에도 가장 강력한 개인전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의외로 복병인 박광주 5단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백 △로 끼운 수가 좋은 수인가 했으나 흑이 73으로 막고 보니 오히려 흑을 굳혀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수로는 평범하게 '참고도'의 백 1로 늘고 흑 2로 지킬 때 3으로 내려 하변 흑 두점을 잡아두는 것만 못했다. 이러면 집으로는 그럭저럭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흑 77을 선수하고 79로 대망의 우변까지 차지해서는 흑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할만한 만족스런 결과다. 하변은 아직도 흑 두점이 넘어가는 수가 남아 있고 약한 돌도 없다. 아주 편안한 국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바둑판은 넓고 둘 곳은 많다 .허우석 5단 심기일전하여 무너지고 있는 집균형을 맞추기 위해 백 80으로 우변에 쳐들어 간다.

흑 81 때 백 82로 중앙을 지킨 것은 절대수. 백 돌을 보강하면서 은근히 중앙의 흑 대마를 노려보고 있다. 백 88까지 살아두고 드디어 90으로 노리고 있던 흑 대마 공격을 시작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구리 9단, 중국 랭킹 1위

구리 9단이 중국 랭킹 1위를 지켰다. 중국기원은 30일 "올해 누적 성적을 집계한 결과 구리 9단이 등급 점수 2천716점을 획득하면서 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리는 지난 2003년 발표된 랭킹에서 처음 랭킹 1위에 오른 이후 통산 14번째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구리에 이어 창하오 9단, 씨에허 7단, 콩지에 7단, 박문요 5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선족 기사인 박문요는 최근 11위에서 5위까지 뛰어오르는 자신의 위치를 높였다. 반면 오랫동안 3위권 내에 머물러 있었던 후야오위 8단은 8위로 추락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